

이상경 차관, 아부다비 스마트시티 진출 모색

- 17일 오후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 만나 스마트 도시·교통 협력 논의

-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17일(목)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석차 방한한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(Mohammed Ali Al Shorafa)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을 만나 한-UAE 간 도시 및 교통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아부다비는 UAE 면적의 8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UAE 석유 매장량의 94%를 점유하고 있는 토후국으로 UAE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아부다비의 국토교통과 자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와 고위급 면담, 수소 생산 및 충전에 관한 기술협력 사업 추진 등 협력 중이다.
- 이 차관은 “한국은 AI, 디지털트윈,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운영이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만들고 있다”고 소개하면서,
 - “한국의 도시개발 기술과 경험을 통해 아부다비를 친환경 미래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 - 모하메드 의장은 “이번 방한은 한국의 도시건설 및 인프라 구축 경험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, 향후에도 양 부처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화답했다.
- 모하메드 의장은 7월 14일 방한해, 15일 부산에서 열린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, 한국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서비스를 둘러보며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.

□ 아울러, 이 차관은 “양측이 추진 중인 수소 생산 및 충전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*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소도시 개발과 수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”을 제안하였다.

* 버스차고지형 수소 생산·충전시설 국내 및 해외^{UAE} 실증사업('21.4~'25.12)

○ 아울러,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가 추진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교통인프라, 발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아부다비에 주목하고,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여 2025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국토교통부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천재민	(044-201-3526)
		담당자	사무관	홍종길	(044-201-3530)
			주무관	고서린	(044-201-3531)